

ISSN 2733-8258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17

2021. 04. 29

www.nafi.re.kr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4. 29

Vol. 17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4월 29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허종호

요약

I. 국가 단위 행복조사의 필요성

II.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

- ▶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가 지나고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의 지표로 행복을 측정하고 활용하는 노력이 선진국과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임
- ▶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됨
- ▶ 국가와 사회, 혹은 정책 등에 대한 만족과 불만을 읽을 수 있는 독립적인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행복 조사는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고리’로서 주목받고 있음

- ▶ 국가단위의 행복 조사 자료는 다양한 연령 집단과 지역, 직업군에 따라 수집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국가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구성원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

- ▶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함

● 전반적 행복감 10점 만점 기준 평균 7.83점

- ▶ 1인 가구, 저소득 개인, 중졸 이하,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 등의 특성을 가진 표본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전반적 행복감이 높은 집단에서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 ▶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 평균 7.56점,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평균 7.54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 평균 7.59점(10점 만점 기준)
- ▶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2016~2018년 3개년 평균 5.89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면접설문을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값이 세계행복보고서의 결과보다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행복 취약계층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을 문제를 확인

- ▶ 그러나, 행복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함(주로 60대 이상, 1인 가구, 중졸 이하,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 특히, 지역별 격차는 향후 해결해야 할 큰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 ▶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지역 간의 격차로서, 전북, 전남, 광주, 경남지역의 행복 수준이 높은 반면, 경북과 제주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행복 취약 계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제안 필요

- ▶ 정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행복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임
- ▶ 노인, 1인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한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사와 심층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 ▶ 국회 차원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 자료를 축적해 갈 필요가 있음
- ▶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조사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임

I. 국가 단위 행복조사의 필요성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

- ▶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 국민적 요구가 해외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증가함
- ▶ 행복 수준이 높은 개인 및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바람직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예, 건강, 수명, 출산율 및 이타적인 행동 등), 이러한 ‘좋은 사회’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로 요약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 관점임

■ 이에 행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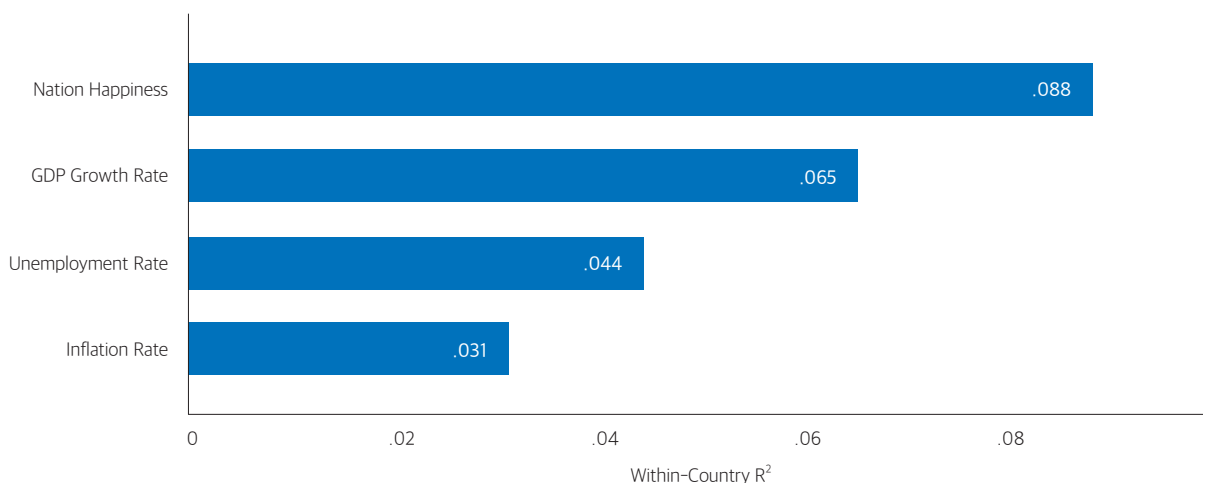
- ▶ 영국, 핀란드,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각국의 삶의 질과 행복측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 국가 컨설팅(영국), 의회 위원회(독일, 노르웨이), 국가적 라운드테이블(이태리, 스페인, 슬로베니아), 경제, 사회, 환경 조건 관련 통계의 통합 및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미국), 통계보고서(호주, 아일랜드) 등이 있음
- ▶ 2013년 OECD가 발표한 주관적 안녕감 측정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과 UN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05년부터 계속된 Gallup의 세계 160여 개 국가 대상 행복 조사는 중요한 기준 자료가 되고 있음
- ▶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최근 정부 산하에 행복부(Ministry of State for Happiness and Wellbeing)를 신설하고, 2018년 2월 UN과 함께 세계 행복 대담(Global Dialogue for

Happiness)을 공동 개최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행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행복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구성원의 행복 수준이 그 사회를 더욱 윤택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됨

- ▶ 높은 행복감은 친사회적 행동과 견고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기부금,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신뢰, 협력 등; Aknin, Dunn, & Norton, 2011; Diener & Ryan, 2009; Krueger, Hicks, & McGue, 2001)
- ▶ 지역의 평균 행복 수준이 그 지역의 신장 이식과 같이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높은 수준의 이타적 행동 수준 또한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관찰됨(Brethel-Haurwitz & March, 2014)
 - 이러한 이타적 행동에 대해 행복은 수입을 비롯해 수입 불평등 수준, 교육 수준, 건강 등 객관적 변인을 뛰어넘는 예측치임
- ▶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경향이 나타남
 - 국가의 행복 수준은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등에 비해 정부 투표 점유율을 더 잘 예측함으로써, 객관적 사회 통계치 이상의 강력한 예측력을 보임(그림1)

[그림 1] 국가의 행복 및 객관적 사회 측정치가 정부의 투표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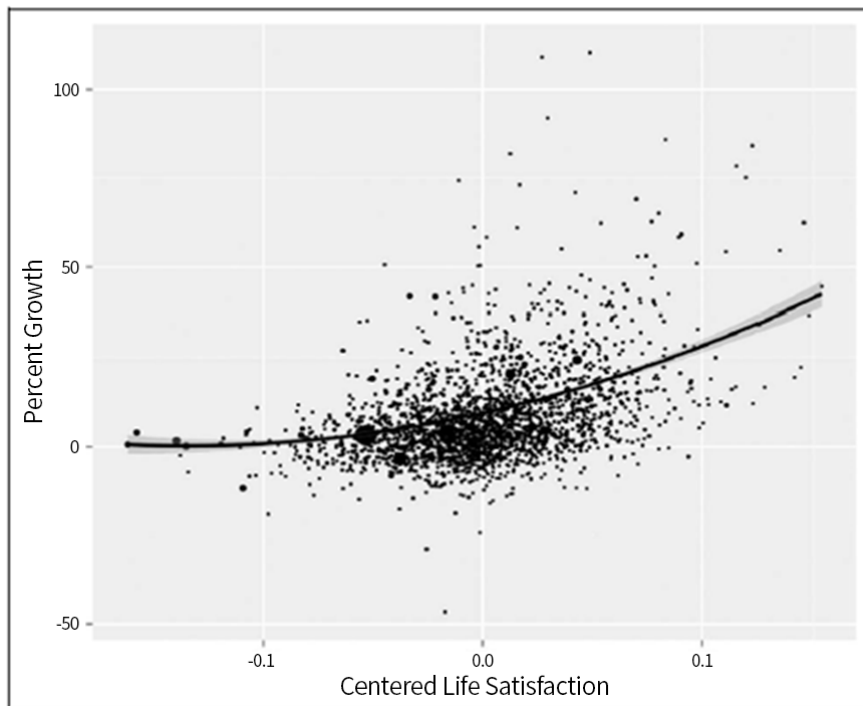


출처 : Ward,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8 재인용

■ 지역의 평균 행복 수준은 인구 증가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 ▶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무려 14배 차이를 보였으며(그림 2), 삶의 만족감을 묻는 단 한 문항(“In general, how satisfied are you with your life?”)만으로 인구 증가율 예측이 가능함
- ▶ 행복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심장병, 살인, 암이나 간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됨(Lawless & Lucas, 2011).

[그림 2] 2000-2010년 미국 내 지역별 인구 증가율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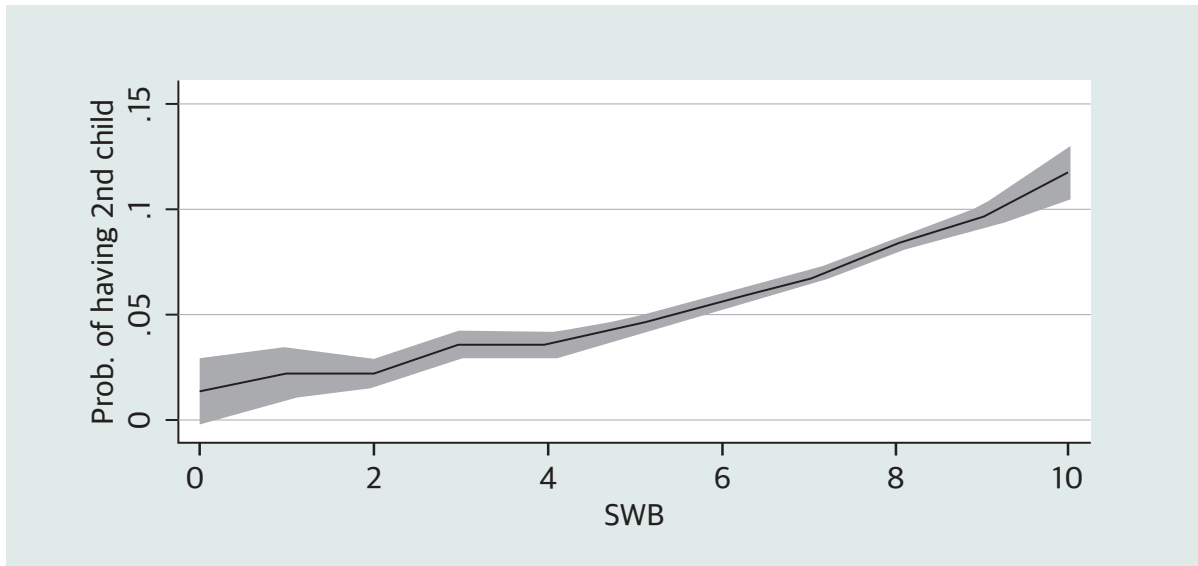


주 : 각 점은 미국의 county를 나타내며, 점의 크기는 각 county의 인구수를 나타냄(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1SD)이 낮은 지역(-1SD)에 비해 14배 차이를 보임)
출처 : Lucas, 2014

- ▶ 높은 행복 수준은 개인의 성생활(Blanchflower & Oswald, 2004) 예측과 더불어 결혼, 출산, 건강한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고 알려짐(Luhmann, Lucas, Eid, & Diener, 2013)
- ▶ 행복은 높은 자녀 출산의도 및 출산율과 관련됨(Billari, 2009; Mogliea, Mencarini, Rapalli, 2015)

- ▶ 행복은 남녀에게 모두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변인이었으며, 2년 뒤 출산을 예측가능하였고(Parr, 2010), 특히 높은 행복 수준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임(그림 3)
- ▶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인구 절벽 문제의 해결에 있어 행복이 근본적이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그림 3] 삶의 만족도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



출처 : Mogliea, Mencarini, Rapalli,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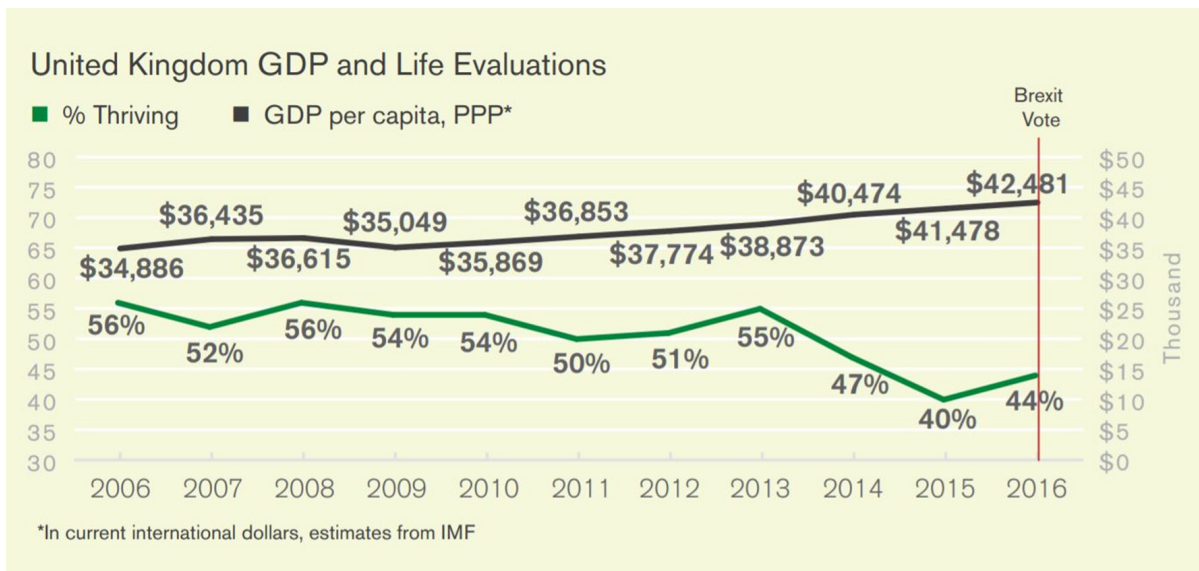
■ 국가 내의 행복 수준 변화 추이는 중요한 사회현상에 대한 독보적인 예측치로 기능함

-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선거나 미국의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례적 결과들의 경우 기존의 어떤 객관적 사회지표로도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유일하게 국가 평균 행복 수준의 추이가 이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고함(그림 4; Gallup, 2017)
- ▶ 2011년 발생한 아랍 폭동과 2013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시위 또한 국민의 삶의 만족도 평균 수준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를 통해 예견되었다고 보고함(Gallup, 2017).

■ 국가와 사회, 혹은 정책 등에 대한 만족과 불만을 읽을 수 있는 독립적인 척도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 이러한 사회현상들은 객관적인 사회 경제 지표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이며, 국가 수준에서 국민의 주관적 행복의 지속적인 측정과 더불어 다양한 관련 변인의 파악을 통한 진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4] 브렉시트(BREXIT) 선거 이전 10년 간 영국 GDP와 삶의 만족도 평가 추이



출처 : Gallup, 2017

■ 행복 조사는 국가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욕구와 국가의 정책 간의 ‘연결 고리’로서 주목받고 있음

- ▶ 행복의 측정은 국민의 행복 수준과 함께 현 사회의 위치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국가 정책 수립 및 실시,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Diener, Lucas, Schimmack, & Helliwell, 2009).
- ▶ 국민들의 행복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측정치로서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들을 상당히 잘 예측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검증됨(Diener, 2000)
- ▶ 조사된 행복 수준은 여타 경제적 측정치들과 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정책 실효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가 되며,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됨(Oishi & Diener, 2014).

- ▶ 국가단위의 행복 조사 자료는 다양한 연령 집단과 지역, 직업군에 따라 수집 가능하며, 수집된 자료는 국가 정책 입안자가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구성원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하는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임

- ▶ 매년 발간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약 5.87점대 안팎으로 150여개국 중에서 50위 후반에 자리잡고 있음(Helliwell, Layard, Sachs, De Neve, Aknin, Huang, & Wang, 2020)
- ▶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 주관적 행복도는 상당히 낮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함

-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전문분야에 따라 구분된 기존 정부 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 부처에서 통합적, 심리적 특성을 가진 행복지표에 대해 전문분야와의 부합성, 단기적 예산 배정 등으로 인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조사 연구가 진행하지 못해왔기 때문임

■ 국회를 통한 입법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에 기여하는 것이며, 국회가 가진 부처 통합적 성격과 정부건제 역할을 고려해볼 때 국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국회미래연구원은 행복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한 입법 방향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기관 설립 초기부터 국민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
 - 2018년 「한국 삶의 질 조사 기반 연구」, 2019년 「한국인의 행복 측정 기반 연구」 등 설문 도구 초안 개발 연구와 2020년 통계개발원의 두 차례 인지면접을 바탕으로 조사설문지 완성함
 - 전문조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2020년 전국적인 예비조사를 수행함

-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를 통해 ①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 발굴에 활용하고자 실시됨

II.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11~12월에 걸쳐 15세 이상 전국 남녀 약 14,000여 명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실시함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적격 조사대상자 전원을 조사함.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응답자 선호에 따라 비대면 조사 방법인 유치조사 방식을 병행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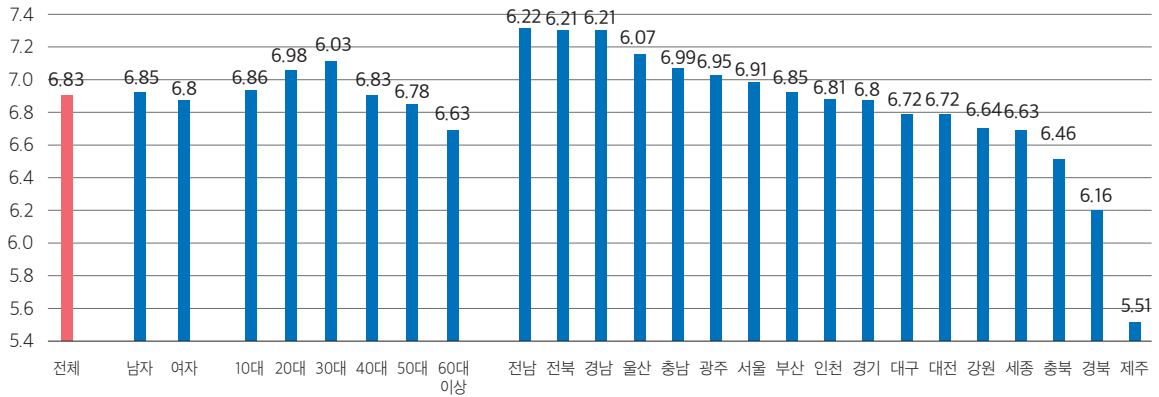
1. 전반적 행복감

- 전반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5.0%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반적 행복감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6.83점임

- ▶ 전반적 행복감은 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별로 30대의 행복감이 7.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행복감이 6.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지역별로는 전남(7.22점), 전북(7.21점), 경남(7.21점) 순으로 행복감이 높았으며, 제주(5.51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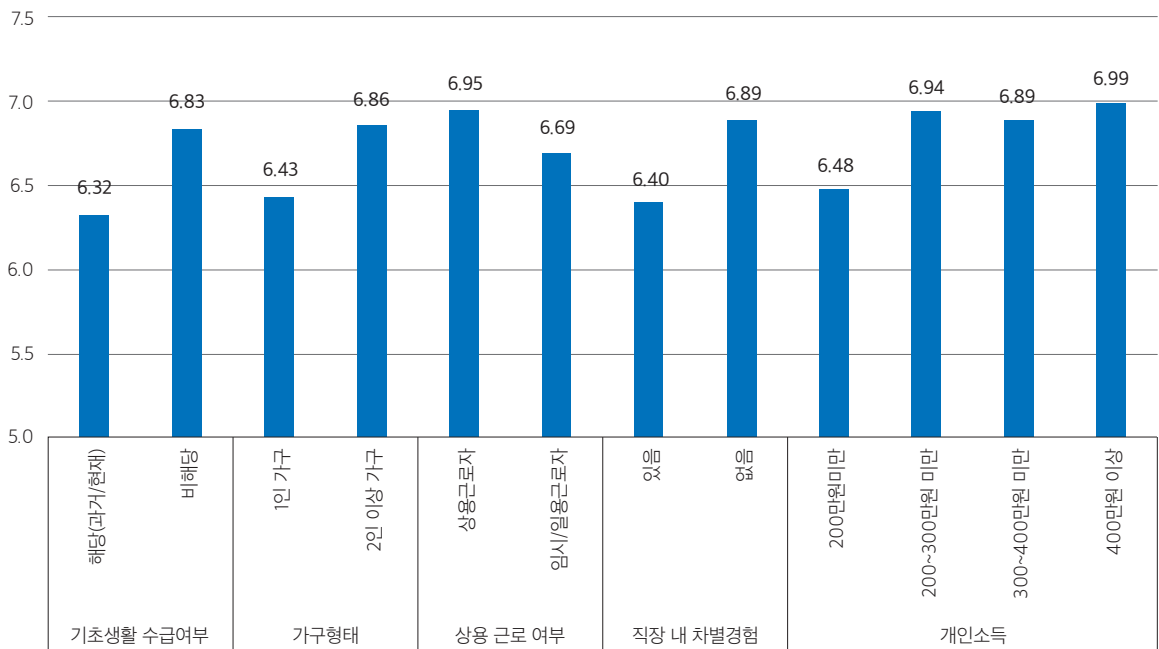
1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 기관의 “한국인의 행복조사(예비조사) 연구” 참조

[그림 5] 전반적 행복감 : 성/연령/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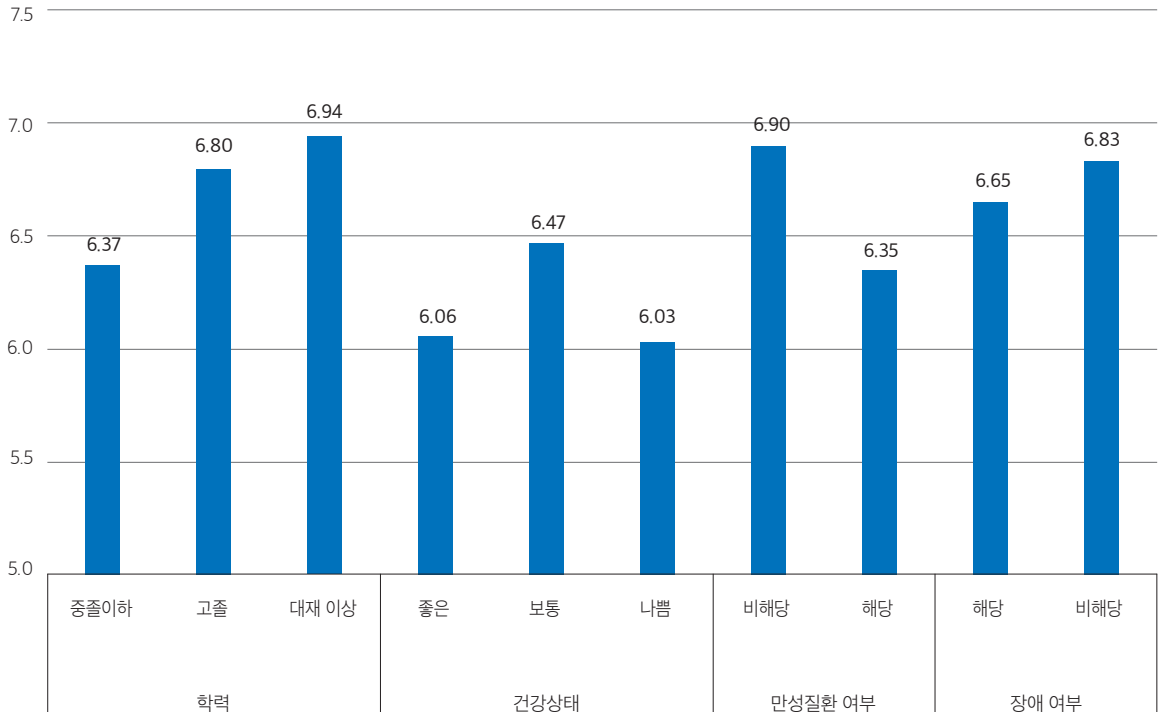
- ▶ 기초생활 수급여부별로는 해당 가구(6.32점)보다 비해당 가구(6.83점)에서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6.43점)보다 2인 이상 가구(6.86점)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6] 전반적 행복감 : 기초생활 수급여부/가구형태/상용근로 여부/직장 내 차별경험/개인소득



임시/일용근로자(6.69점), 직장 내 차별 경험자(6.40점),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6.48점),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6.03점), 만성 질환 보유자(6.35점), 장애인(6.65점) 등의 특성을 가진 응답자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임

[그림 7] 전반적 행복감 : 학력/건강상태/만성질환 여부/장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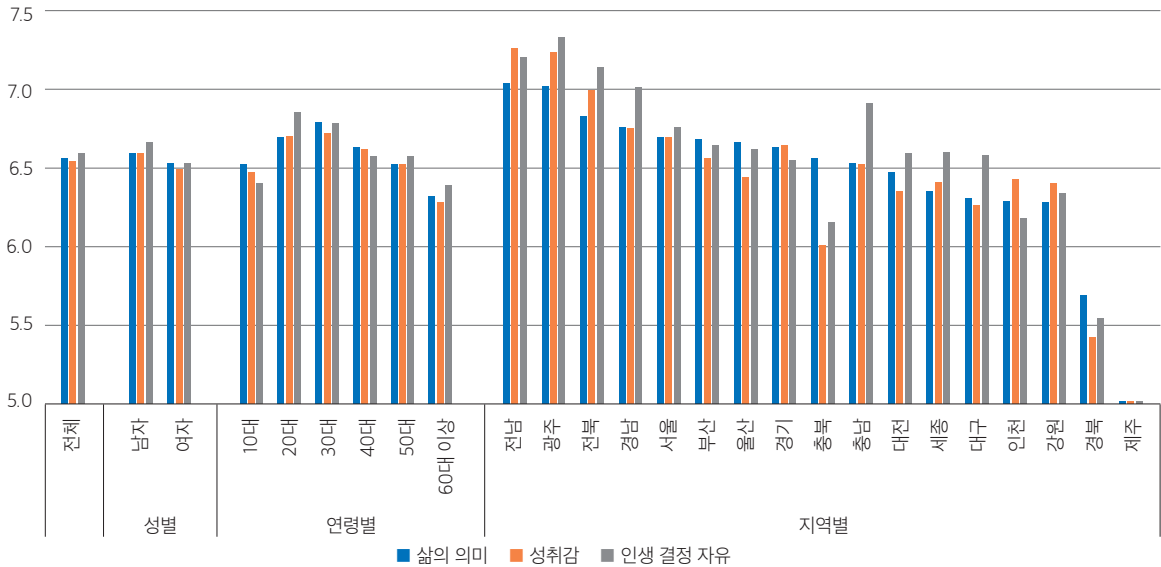


2.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평소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삶에서 의미 있다고 느낀다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 정도는 평균 6.56점, ‘나는 대체로 내가 하는 일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 정도는 평균 6.54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는 항목에 대해서 동의 정도는 평균 6.59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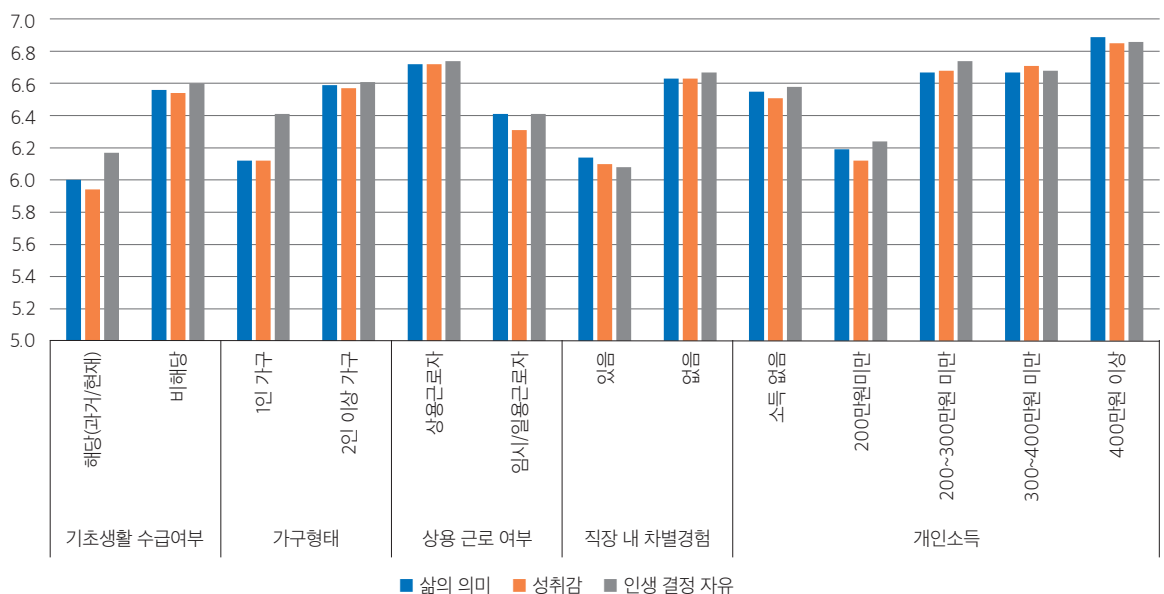
- ▶ 전반적 행복감이 높은 집단(6~10)에서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남녀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은 반면, 60대 이상이 가장 낮음
- ▶ 지역별로는 편차가 커서 전남, 광주, 전북 순으로 높았으나 경북과 제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8]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전체/성별/연령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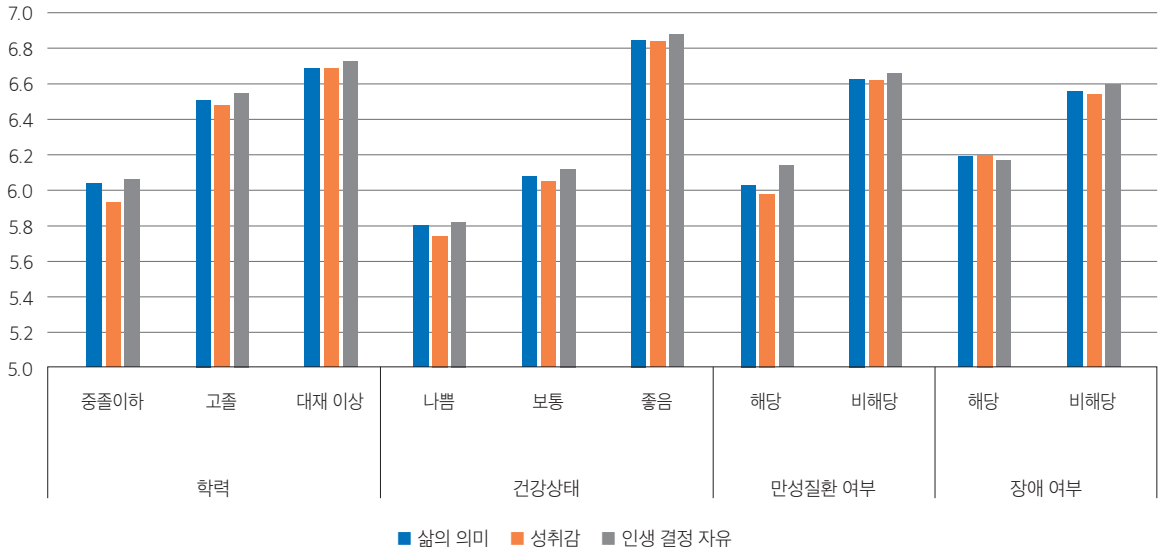
- ▶ 기초생활 수급여부별로는 해당 가구보다 비해당 가구가 높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가 높게 나타남
- ▶ 개인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6.11점)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 9]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기초생활 수급여부/가구형태/상용근로 여부/직장 내 차별경험/개인소득



- ▶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만성 질환 미보유자, 비장애인이 상대적인 그룹보다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여줌

[그림 10] 삶의 의미, 성취감, 인생 결정 자유 : 학력/건강상태/만성질환 여부/장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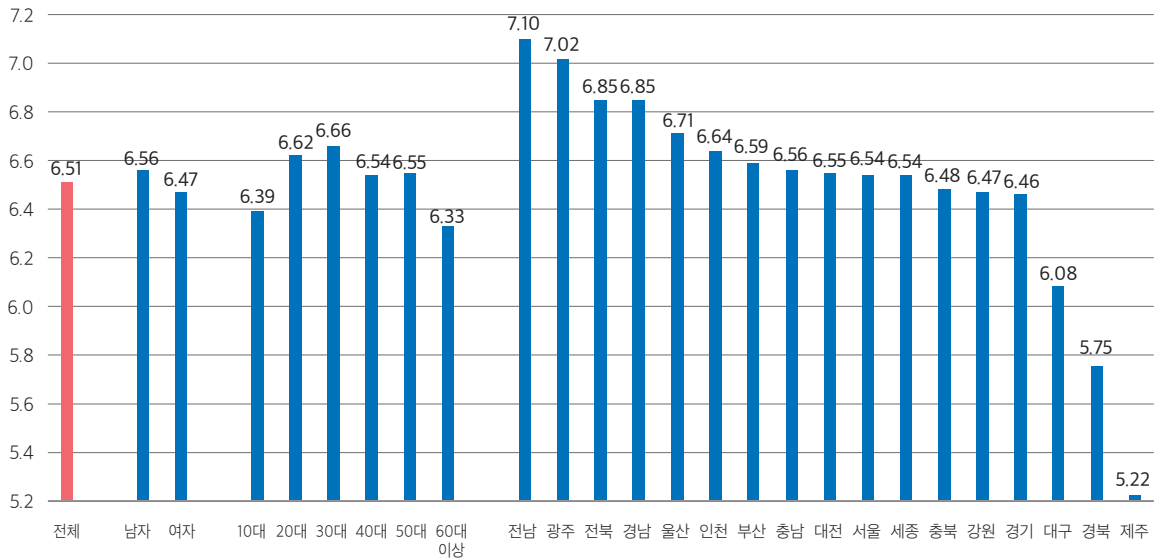


3.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0.8%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 응답은 6.4%로 낮게 나타남. 사다리 위치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51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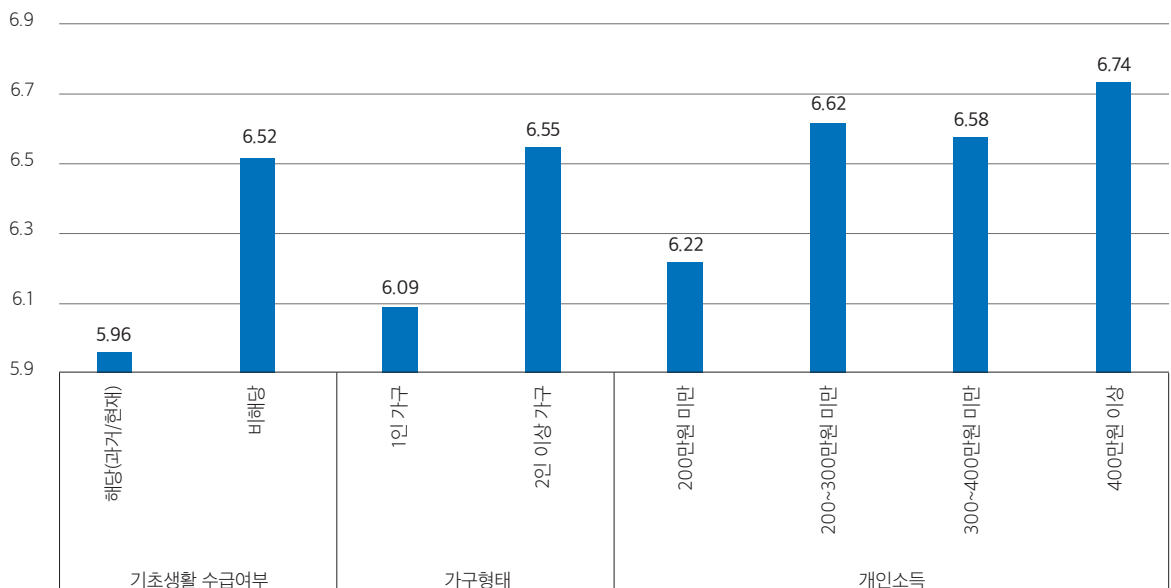
- ▶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는 여성(6.47점)보다 남성(6.5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 30대가 6.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이 6.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전남(7.10점), 광주(7.02점), 경남(6.85점)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5.22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11]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전체/성별/연령별/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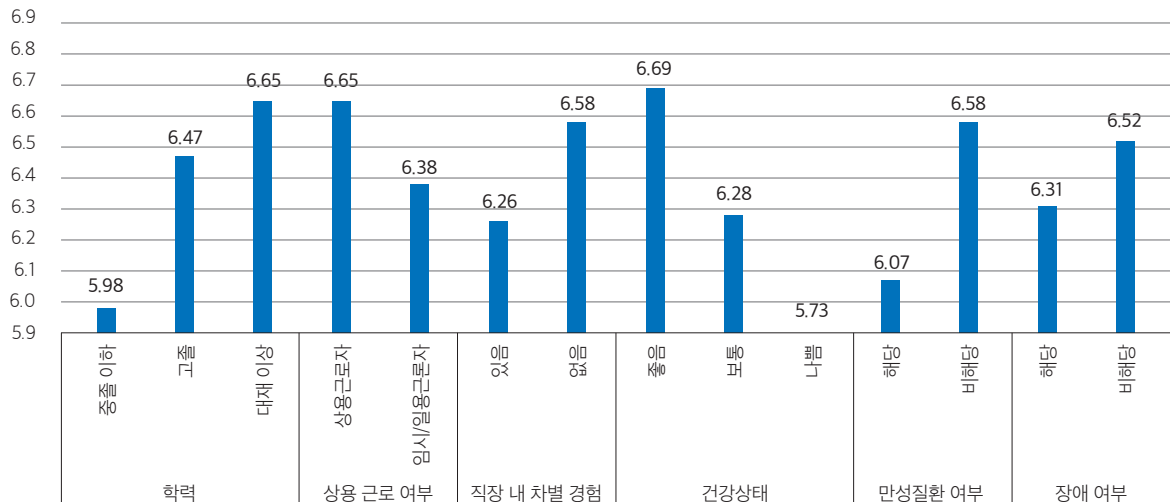
- ▶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해당 가구는(5.96점)는 비해당 가구(6.52점)에 비해, 1인가구(6.09점)는 2인 이상 가구(6.55점)에 비해, 개인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사다리를 낮게 인식함

[그림 12]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기초생활 수급여부/가구형태/개인소득



- ▶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에 대해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일용근로자(6.38점)가 상용근로자에 비해(6.65점)에 비해, 직장 내 차별을 겪은 사람(6.26점)이 그렇지 않은 개인(6.58점)에 비해, 건강상태가 나쁠수록(5.73점), 만성질환이 있거나(6.07점), 장애가 있는 개인(6.31점)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사다리를 낮게 인식함

[그림 13] 현재 자신의 사다리 위치 : 학력/상용근로여부/직장내 차별/건강상태/만성질환 여부/장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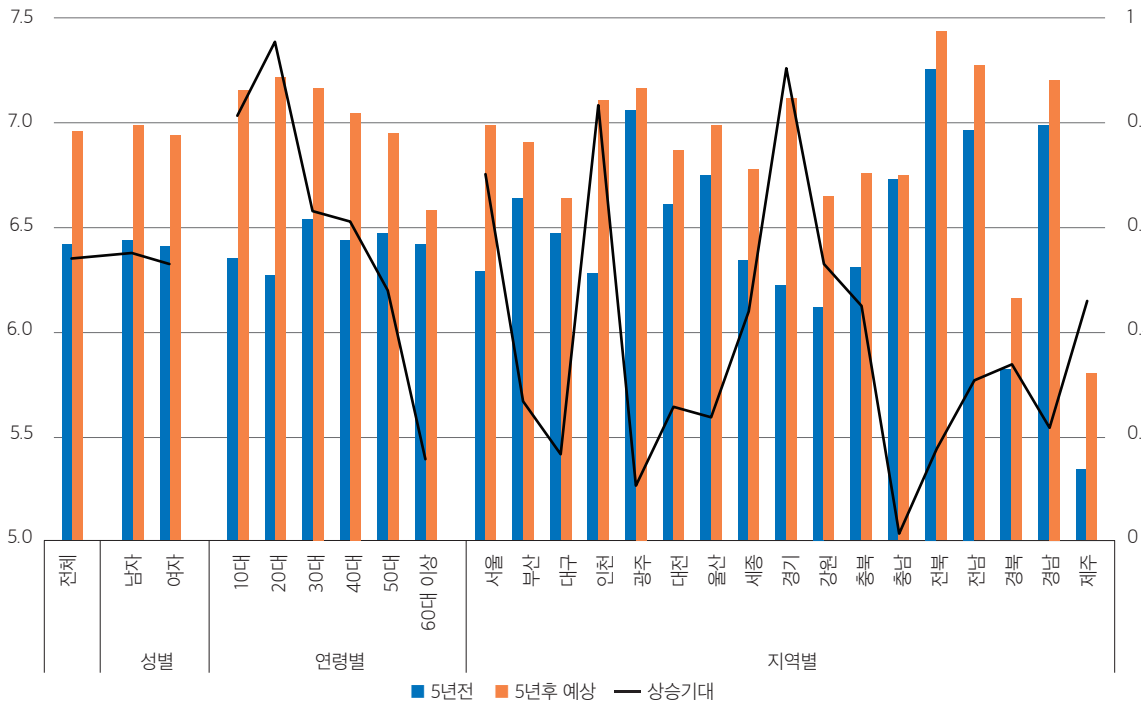
4. 5년 전/후의 삶의 만족도

- 5년 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3%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 응답은 7.2%로 낮게 나타남. 만족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42점임. 5년 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1%는 6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며, 4점 이하 응답은 3.4%로 낮게 나타남. 만족도를 평균으로 환산하면 6.96점임.

- ▶ 5년 전/후 삶의 만족도는 성별로 큰 차이는 없고 장래 만족도 기대치도 비슷함
- ▶ 연령별로 5년 전 30대의 만족도가 6.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만족도가 6.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5년 후의 만족도 상승 예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떨어짐
- ▶ 지역별로는 전북(7.26점), 광주(7.06점), 경남(6.99점) 순으로 5년 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제주(5.34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 5년 후 만족도 상승 예상에 있어서 경기(0.9점), 인천(0.83점), 서울(0.7점)으로 높고, 광주(0.11점), 대구(0.17점), 충남(0.02점)순으로 낮음

[그림 14] 5년 전/후의 삶의 만족도: 전체/성별/연령별/지역별



Ⅲ. 결론 및 제언

■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중간 이상

- ▶ 연구결과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감은 10점 만점 기준 평균 7.83점임
- ▶ 전화조사 방식을 이용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2016~2018년 3개년 평균 5.895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면접설문을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값이 보다 타당성과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행복 취약계층을 통해 행복의 불평등을 문제를 확인

- ▶ 행복에 있어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취약집단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함(주로 60대 이상, 1인 가구, 교육 및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 특히, 지역별 격차는 향후 해결해야 할 큰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 ▶ 성별 또는 사회경제적 지표들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 지역 간의 격차로서, 전북, 전남, 광주, 경남지역의 행복 수준이 높은 반면, 경북과 제주는 행복과 관련된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행복 취약 계층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정책적 제안 필요

- ▶ 정부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행복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임
- ▶ 노인, 1인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한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사와 심층연구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음

- ▶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 자료를 축적해 갈 필요가 있음
- ▶ 2021년부터는 본격적인 본조사 실시 등을 통해 조사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임

참고문헌

- Aknin, L. B., Dunn, E. W., & Norton, M. I. (2012). Happiness runs in a circular motion: Evidence for a positive feedback loop between prosocial spending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2), 347-355.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Money, sex and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6(3), 393-415.
- Billari, F. C. (2009). The happiness commonality: Fertility decisions in low-fertility settings, how generations and gender shape demographic change: Towards policies based on better knowledge (pp. 7-31). New York: United Nations.
- Brethel-Haurwitz, K. M., & Marsh, A. A. (2014). Geographic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predict extraordinary altruism. *Psychological Science*, 25(3), 762-771.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 Diener, E., Lucas, R., Schimmack, U., & Helliwell, J.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iener, E., & Ryan, K. (2009). Subjective well-being: A general overview.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39(4), 391-406.
- Gallup (2017). What happiness today tells us about the world tomorrow. <https://news.gallup.com/reports/220601/what-happiness-today-tells-us-about-the-world-tomorrow.aspx>.
- Helliwell, Layard, Sachs, De Neve, Aknin, Huang, & Wang, (2020). *Social environments for world happiness, Happiness Report 2020*
- Krueger, R. F., Hicks, B. M., & McGue, M. (2001). Altruism and antisocial behavior: Independent tendencies, unique personality correlates, distinct etiologies. *Psychological Science*, 12(5), 397-402.
- Lawless, N. M., & Lucas, R. E. (2011). Predictors of regional well-being: A county leve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3), 341-357.

- Lucas, R. E. (2014). Life satisfaction of US counties predicts population growth.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4), 383-388.
- Luhmann, M., Lucas, R. E., Eid, M., & Diener, E. (2013). The prospective effect of life satisfaction on life event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4(1), 39-45.
- Mogliea, Mencarini, Rapalli, (2015). Is it just a matter of personality? On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childbearing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17, 453-475
- Oishi, S., & Diener, E. (2014). Can and should happiness be a policy goal?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1), 195-203.
- 1Parr, N. (2010). Satisfaction with life as an antecedent of fertility: Partner+ Happiness= Children? *Demographic Research*, 22, 635-662.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